

LEARN & ACT 교사 가이드

양성평등한 세상 만들기

목차

들어가며	1
1. 양성평등이란 무엇일까요?	3
2. 글로벌 성 불평등 현황	4
3. 양성평등 보장을 방해하는 요소들	5
4. 양성평등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	6
5. 양성평등 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들	7
6. 양성평등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8
7. 코로나19와 양성평등 보장	10
8. 인류의 양성평등 보장을 위하여	10

도입 1 : 여성을 억압하는 전통과 관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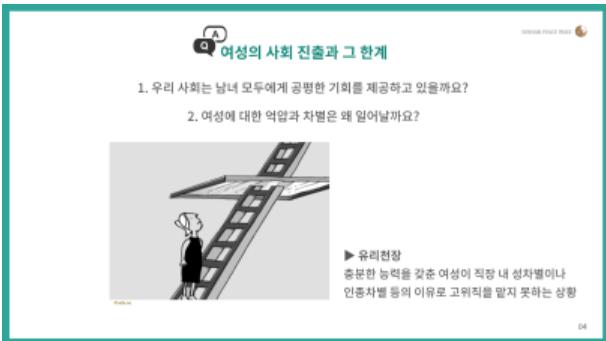


▶ p.03

● 가문의 명예를 훼손한 여성을 살해하는 ‘명예살인’

명예살인(Honor Killing)이란 이슬람 국가에서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일종의 관습이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생매장, 돌팔매질, 처형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다. 많은 여성 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혼전순결을 잃거나 단순히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나 남자 형제, 혹은 다른 가족들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 명예살인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일부 국가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차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근절이 더딘 실정이다.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 약 5000명이 명예살인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도입 2 : 여성의 사회 진출과 그 한계



▶ p.04

● 우리 사회는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까요?(브레인스토밍)

● ‘유리천장’이란?

유리천장(Glass ceiling)은 '충분한 능력을 갖춘 여성이 직장 내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 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직장 내 성차별은 주로 다음과 같다.

- ① 직원의 업무능력으로 설명될 수 없는 성적·인종적 차별 존재
- ② 높은 성과가 요구될수록 성적·인종적 차별 심화
- ③ 고위직으로 갈수록 성적·인종적 차별 가능성 심화
- ④ 경력이 높아질수록 성적·인종적 차별 심화

●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은 왜 일어날까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 보장을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 중이며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많은 국가에서 전통과 관습, 문화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

도입 3 : 전 세계 성 불평등 지수



▶ p.05

● 성 불평등 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란?

성 불평등 지수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이 각 나라의 성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입한 지수이다.

● GII가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

GII는 0이면 완전 평등한 상태, 1이면 완전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평가는 다음 5가지 기준으로 한다.

- ▲ 출생 아동 10만 명 당 모성 사망률
- ▲ 여성 청소년 인구 1000명 당 출산 인구
- ▲ 여성 국회의원 비율
- ▲ 25세 이상 인구 중 중등 이상 교육을 받은 여성의 인구 비율
-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 양성 평등 1위는 스위스, 꼴찌는 예멘

2019년 발표 결과에 따르면 1위는 스위스(0.037), 2위는 덴마크·스웨덴(0.040)이 차지했다. 최하위는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로 160위 차드(0.710), 161위 파푸아뉴기니(0.725), 162위 예멘(0.795)이었다.

+ 지도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 보아요.

- 전 세계적으로 성 불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어디인가요?
- 이처럼 성 불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의 여성의 삶은 어떠할까요?
- 여성의 지위와 권한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1. 양성평등이란 무엇일까요?

01. 양성평등이란 무엇일까요?

성(SEX)과 젠더(GENDER)

양성평등이란? 성 불평등이란?

양성평등 보장 = 여성 차별 철폐, 여성 권한 강화



▶ p.06

● 성(Sex)과 젠더(Gender)

성(Sex)은 인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생물학적 특징을 의미한다. 반면 젠더(Gender)는 사회적 역할 및 관계, 개인적 성향, 태도, 행동, 가치관 등을 통해 형성되는 후천적 성 개념이다. 젠더는 학습되는 측면이 강하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양성 모두에서 동등한 참여 기회를 주고, 동등한 권리와 의무, 동등한 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성 불평등이란?

한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지하는 지위, 권한, 위신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뜻한다. 성별을 이유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성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본다.

● 양성평등 보장 = 여성 차별 철폐, 여성 권한 강화

양성평등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권한을 강화해야 이를 수 있다. 전 세계 여성 중 상당수는 남성에 비해 기회와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가난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양성평등 보장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이들에게 기회와 권리를 확대하는 것은 가정,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지구촌 전체의 건강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은 아이들의 주 양육자이므로, 여성의 인권 강화는 미래 세대에까지 긍정 효과를 줄 수 있다.

2. 글로벌 성 불평등 현황(1)

02. 글로벌 성 불평등 현황 (1)



- 1) 어린 나이에 강제 결혼하는 소녀들
- 2) 끔찍한 아동학대, 여성 성기 절단(FGM)
- 3) 신체적, 성적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
- 4) 임신·출산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여성들

ET

▶ p.07

● 어린 나이에 강제 결혼하는 소녀들

전 세계적으로 7억 5천만 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18세 이전에 결혼하였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빈곤한 가정 형편, 전통 관습의 강요로 인해 어린 나이에 결혼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어린 신부들은 요리, 청소, 밭 일 등의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아이를 낳는 의무까지 떠안는다. 심한 경우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성적 학대를 경험하기도 하며, HIV에 감염될 확률도 높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소녀들의 38%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명의 여성들이 18세 이전에 결혼하고 있다.

● 끔찍한 아동 학대, 여성 성기 절단(FGM)

여성 성기 절단(Female Genital Mutilation, FGM)이란 성인식 차원에서 행해지는 여성의 성기 일부 혹은 전체를 날카로운 도구로 잘라내는 시술이다. 시술 과정이 매우 비위생적이고 위험해 단기적으로는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 세균 감염, 성병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장기적으로는 생리불순, 불임, 호르몬 이상, 자궁 출혈,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겪는다. 30개국의 최고 2억 명이 넘는 여성과 소녀들이 FGM을 겪었으며, 그중 많은 수가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FGM 근절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30개국에서 FGM이 행해지고 있다.

● 신체적·성적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

15~49세 여성 중 19%에 달하는 이들이 배우자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신체적,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UN은 여성은 상대로 한 신체적, 성적 폭력이 그들에게 익숙한 공간 속에서 익숙한 사람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를 바탕으로,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은 집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 임신·출산의 선택권이 없는 여성들

기혼여성 중 52%만이 피임·출산 등에 대해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약 2억 명 여성들은 피임약이 필요하지만 구할 수 없어 어린 나이부터 너무 자주 임신하고 있다. 잦은 임신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을 해치고 자녀 양육과 교육, 생계유지 등 가정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발전까지 저해한다.

2. 글로벌 성 불평등 현황(2)



▶ p.08

● 여성은 세상의 1/2, 그러나 여성 국회의원은 1/4

여성은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세계 각국 의회에서 여성의 차지하는 비율은 24.3%에 불과하다. 국제사회는 의회 여성 의석 비율을 30%까지 올리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지만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의회 진출률이 낮다는 것은 정부의 정치적 결정 과정에 여성들의 의사 반영이 충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육아휴직, 연금, 양성 평등 관련 법, 성별에 따른 폭력 등 여성 정치인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이슈들이 방치될 가능성성이 높아진다.

● 여성의 농지소유율은 단 13%

세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많지만 농지를 소유한 여성은 농경지 보유자의 13%에 불과하다.

● 남성에 비해 무급노동 시간이 3배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 세 배 이상의 시간을 무급 노동을 한다. 대부분은 가사노동(육아와 가족 부양, 요리, 청소 등)에 할애되는데, 이는 빈곤한 국가일수록 더 심하다. 무급노동을 많이 할수록 유급노동에 들일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지위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된다.

3. 양성 평등 보장을 방해하는 요소들



▶ p.09

● 가부장적 전통과 관습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전통과 관습 수호’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을 구속하고 통제하며 인권을 짓밟는 다양한 가부장적 행위가 성행 중이다. 이러한 권력관계는 가정 내 성별 분업, 사회적 성별 분업과 불평등을 야기 한다.

● 교육 기회의 불평등

전 세계 많은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적은 교육 기회를 갖는다. 15세-24세의 젊은 여성 4명 중 1명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문맹 성인의 약 2/3가 여성이다. 교육의 부족은 여성이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여성들이 미래를 위해 노력할 기회를 앗아간다. 낮은 교육수준의 여성일수록 본인과 그 자녀들의 건강이 위협받거나 빈곤에 허덕일 확률이 높다.

● 고용 불평등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직업과 관련한 성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해 왔으나 많은 여성 취업자가 생산직, 판매직 등 저임금 직종에 집중적으로 고용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일수록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큰 성취를 달성하리라는 믿음이 만연하며, 이는 여성의 전문직 진출과 소득 증대를 방해한다.

● 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 결여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여성이 가정에서 행해지는 신체적, 성적 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49개 국가에서는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 열악한 의료 서비스

많은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저개발국가의 여성들은 약과 도구의 부족으로 피임이 어렵고, 열악한 의료 환경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위험하게 한다. 건강하지 못한 여성들은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잃고, 만성적 빈곤에 시달리며, 이들의 자녀 또한 비슷한 상황에 놓이곤 한다.

4. 양성평등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

04. 양성평등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



10

▶ p.10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양성평등 보장’

2015년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이다. 이 중 5번째 목표는 ‘양성평등 보장(Gender Equality)’이며, 구체적으로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여성 및 소녀의 권리 신장’을 지향한다.

04. 양성평등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

| SDGs 5. 세부 목표

- 5.1 모든 곳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
 5.2 인신매매와 성 착취 등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폭력 근절
 5.3 아동 강제 조혼과 여성 성기 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 행위 근절
 5.4 공공서비스·인프라·사회보장 정책 마련, 가정 및 가족 내 공동의 책임감을 증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무급 돌봄과 가사노동을 인식하고 이를 소중하게 여길 것
 5.5 정치·경제·공공 영역에서 여성의 온전한 참여와 동등한 리더십 기회 보장
 5.6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5.a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금융서비스 · 유산 · 천연자원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 접근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라 개혁을 시행
 5.b 여성의 역량 강화 촉진을 위한 구현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확대
 5.c 모든 수준에서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및 성평등 촉진을 위한 견고한 정책과 시행 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

11

▶ p.11

● SDGs 5 세부 목표

- 5.1 모든 곳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
 5.2 인신매매와 성 착취 등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폭력 근절
 5.3 아동 강제 조혼과 여성 성기 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 행위 근절
 5.4 공공서비스·인프라·사회보장 정책 마련, 가정 및 가족 내 공동의 책임감을 증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무급 돌봄과 가사노동을 인식하고 이를 소중하게 여길 것
 5.5 정치·경제·공공 영역에서 여성의 온전한 참여와 동등한 리더십 기회 보장
 5.6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5.a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금융서비스 · 유산 · 천연자원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 접근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라 개혁을 시행
 5.b 여성의 역량 강화 촉진을 위한 구현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확대
 5.c 모든 수준에서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및 성평등 촉진을 위한 견고한 정책과 시행 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

5. 양성 평등 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들

05. 양성평등 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

- 여성 인권 교육 강화
- 여성의 '교육' 보장
- 법과 제도의 정비

12

▶ p.12

● 여성 인권 교육 강화

전 세계적으로 양성평등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가부장적 전통과 관행’이다. 가부장 권력에 의한 가정폭력, 관행에 의한 조혼, 해로운 관습인 여성 할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꾸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학교, 가정, 그 밖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양성평등 의식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여성의 ‘교육’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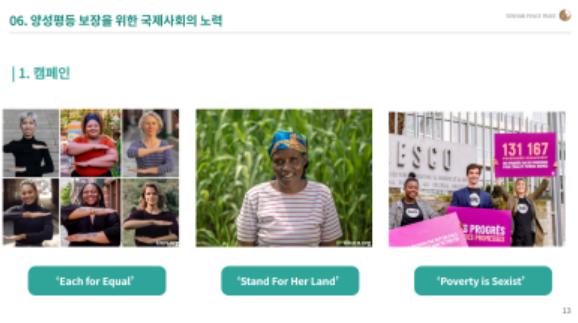
여성들을 위한 기초 교육, 초등교육의 보편화, 다양한 직업 훈련과 문맹 퇴치 수업 등이 필요하다. 교육받은 여성은 교육받지 못한 여성에 비해 더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 법과 제도의 정비

성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의 철폐, 여성의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수다. 현재 18개 국가에서 남편은 아내의 경제활동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고, 39개 국가에서는 딸과 아들의 동등한 상속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여성은 남편의 허락 없이 집을 나설 수조차 없다. 이 밖에도 여성의 주체적인 삶을 위협하는 많은 법과 제도가 양성평등을 저해하고 있다.

● ‘양성평등은 여성과 소녀의 권한을 강화’ 영상 활용: <https://youtu.be/nbhjXK2mMe8> (P12)

6. 양성평등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1. 캠페인)



▶ p.13

● ‘Each for Equal’ 캠페인

‘각자의 자리에서 양성평등을’(#EachforEqual)은 2020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유엔에서 런칭한 캠페인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성 고정관념을 부수고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지 소개하고 해시태그 '#EachforEqual'을 붙여 공유하면 된다.

● ‘Stand For Her Land’ 캠페인

전 세계 여성의 토지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9년에 시작된 글로벌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전 세계 여성의 절반 이상이 남성과 동등한 토지 소유권 및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여성 재산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 ‘Poverty is Sexist’ 캠페인

‘가난은 성차별적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빈곤이 성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며 시작된 캠페인이다. 공동체 내 남성들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저개발국 빈곤층 여성’의 삶의 질 개선과 지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성의 교육 보장, 의료 서비스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6. 양성평등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2. 국제기구)

06. 양성평등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2. 국제기구

- 1) 유엔여성기구
(UN Women)



14

▶ p.14

● 유엔여성기구(UN Women)

유엔여성기구는 2011년 1월에 출범한 UN 산하 국제기구다. ‘여성차별 철폐’, ‘여성 권리 향상’은 물론 ‘경제개발·인권·안보’ 부문의 양성 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유엔여성기구는 시민사회와 협력하며 각국 정부에 양성 평등 관련 기술·재정적 지원을 도맡는다.

● 여성을 위한 세계 기금(Global Fund for Women)

여성을 위한 세계 기금은 여성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재단이다. 1988년부터 170여 개국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4,000여 개의 단체에 1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6. 양성평등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3. 다양한 아이디어)

06. 양성평등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3. 다양한 아이디어

- 1) ‘루미네이트’
여성 엔지니어의 꿈



15

▶ p.15

● 여성 엔지니어의 꿈 ‘루미네이트’

남자아이에게는 로봇 조립 키트, 여자아이에게는 인형을 선물하며 성별에 따른 장난감 공식을 적용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루미네이트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여아용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완구’를 만드는 기업이다. 루미네이트는 여아들이 스스로 인형 집을 조립하고 미니어처 가구를 배치하는 것은 물론, 전기 배선과 모터를 이용해 램프에 불을 켜는 기계 공학을 접목한 조립장난감을 제공하고 있다.

● 네팔의 패션 브랜드 ‘쥬네리’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여성의 경제력 강화’다. 네팔의 패션 브랜드 쥬네리는 가난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기술을 교육하고, 일자리를 제공한다. ‘네팔 사람들이 만드는, 네팔 사람들 을 위한, 네팔의 브랜드’라는 슬로건 아래 네팔 여성들이 직접 재봉 기술을 배우며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익은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 재투자된다.

7. 코로나19와 양성평등 보장



▶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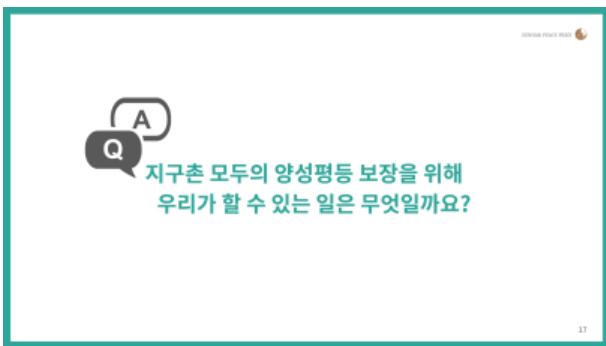
● 코로나19는 성차별적 바이러스

코로나19 이후 여성들은 건강과 경제, 안전과 보안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더 심한 성 불평등을 겪게 되었다. 전 세계적인 봉쇄 조치로 인해 아동, 노인에 대한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이 크게 늘었고, 불안정했던 여성 노동 시장은 더욱 큰 타격을 받았다. 게다가 많은 여성이 가정이나 공동체 내부에 갇혀 지내며 신체적, 성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여성 할례를 받는 소녀들의 수가 전 염병 발생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 팬데믹 시대의 양성평등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는 여성과 소녀들을 코로나19 대응 계획 및 모든 복구 정책의 중심에 두고 이들이 처한 위기 상황에 각별히 주목해야 한다. 팬데믹 사태로 여성이 맞은 다양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 와 각국 정부,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8. 인류의 양성평등 보장을 위하여 (브레인스토밍)



▶ p.17

● 지구촌 모두의 양성평등 보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엠마 웃슨 유엔 연설 영상 활용: <https://youtu.be/rPIYUgZzlBc> (P18)